



I am the key.

# 2A-17

눈높이 국어

받은 날

회원명

교사명

# 쉬운 그림

- 문장 : 어떻게(언제) 어찌한다/어떠하다
- 글 : '놀이터에서', '혼자 잘래요'

3



♥ 글을 읽고, 물음에 답해 보세요.(1~3)

“그럼, 이 은도끼가 네 것이냐?”

“아닙니다. 제 도끼는 쇠도끼입니다.”

“참 정직하구나. 이 금도끼와 은도끼도 너에게 주마.”

신령님은 나무꾼에게 금도끼, 은도끼, 쇠도끼를 모두 주었어요.

“신령님, 정말 고맙습니다.”

나무꾼은 도끼들을 지게에 지고 돌아왔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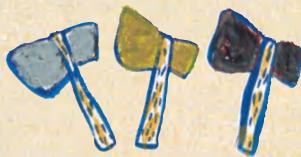


1. 신령님은 나무꾼에게 무엇을 주었나요?

①



②



2. 신령님은 나무꾼을 보고, 어떤 생각을 했나요?

①

정직하구나.

②

욕심이 많구나.



3. 그림을 보고, 알맞은 말을 골라 ○표를 해 보세요.



나무꾼은 도끼들을 ( 머리에, 지게에 )  
지고 돌아왔습니다.

♥ 선생님께서 불러 주시는 말을 바르게 써 보세요.(4~5)

4.

5.



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확인하는 활동입니다.



이야기  
가 꽃씨를 심으려던 화분이 깨져서 울고 있어요. 그림을 보고,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여 말해 보세요.



그림은 한 아이가 화분을 깨뜨려서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. 아이가 다음에 일어날 일을 자유롭게 말하게 해 주세요.(예 : 친구가 자기의 화분에 꽃씨를 같이 심어서 함께 가꾸자고 말해요.)



물음에 알맞은 말을 고르고, 문장을 소리 내어 읽어 보세요.



- 달님은 언제 나오나요?  
(낮, 밤)

달님은 밤에 나옵니다.



문장을 바르게 써 보세요.

달	님	은	밤	에	나	옵	니	다	.
									.

									.
--	--	--	--	--	--	--	--	--	---



'어떻게(언제) 어찌한다/어떠하다'가 들어 있는 문장을 배우는 활동입니다.



물음에 알맞은 말을 고르고, 문장을 소리 내어 읽어 보세요.



- 승우는 **언제** 놀이터에 갔나요?  
(낮, 밤)

승우는 **낮에** 놀이터에 갔습니다.



문장을 바르게 써 보세요.

승 우 는 낮 에 놀 이 터 에

갔 습 니 다 .

--	--	--

--	--

--	--	--	--

--	--	--	--



그림을 보고, 알맞은 문장을 찾아 길을 따라가 보세요.



별은 밤에  
반짝입니다.

정수는 아침에  
운동합니다.

할머니께서는  
새벽에  
일어나십니다.



그림을 보고, 알맞은 말을 골라 ○표를 해 보세요.



눈은

겨울에  
여름에

내립니다.



벼는

봄에  
가을에

익습니다.



그림을 보고, □에 알맞은 말을 골라 써 보세요.



생일에  
추석에

다혜는

--	--	--

친구들을 초대했습니다.



어린이날에  
어버이날에

승규는

--	--	--	--	--

달아 드렸습니다.

부모님께 카네이션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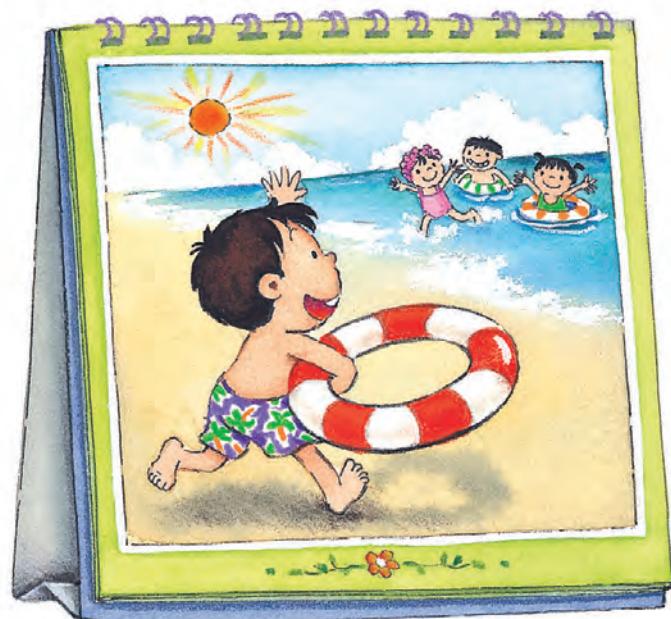
그림을 보고, □에 알맞은 말을 골라 써 보세요.



태호는

--	--	--

잠옷을 입습니다.



태호는

--	--	--

바다에 갑니다.



태호는

--	--	--

세배를 합니다.

설날에  
여름에  
저녁에



글을 소리 내어 읽고, □에 알맞은 말을 써 보세요.

## 놀이터에서

나는 낮에 놀이터에 갔습니다. 놀이터에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. 민수는 미끄럼틀을 타고 있었습니다.



나는 낮에 □□□에 갔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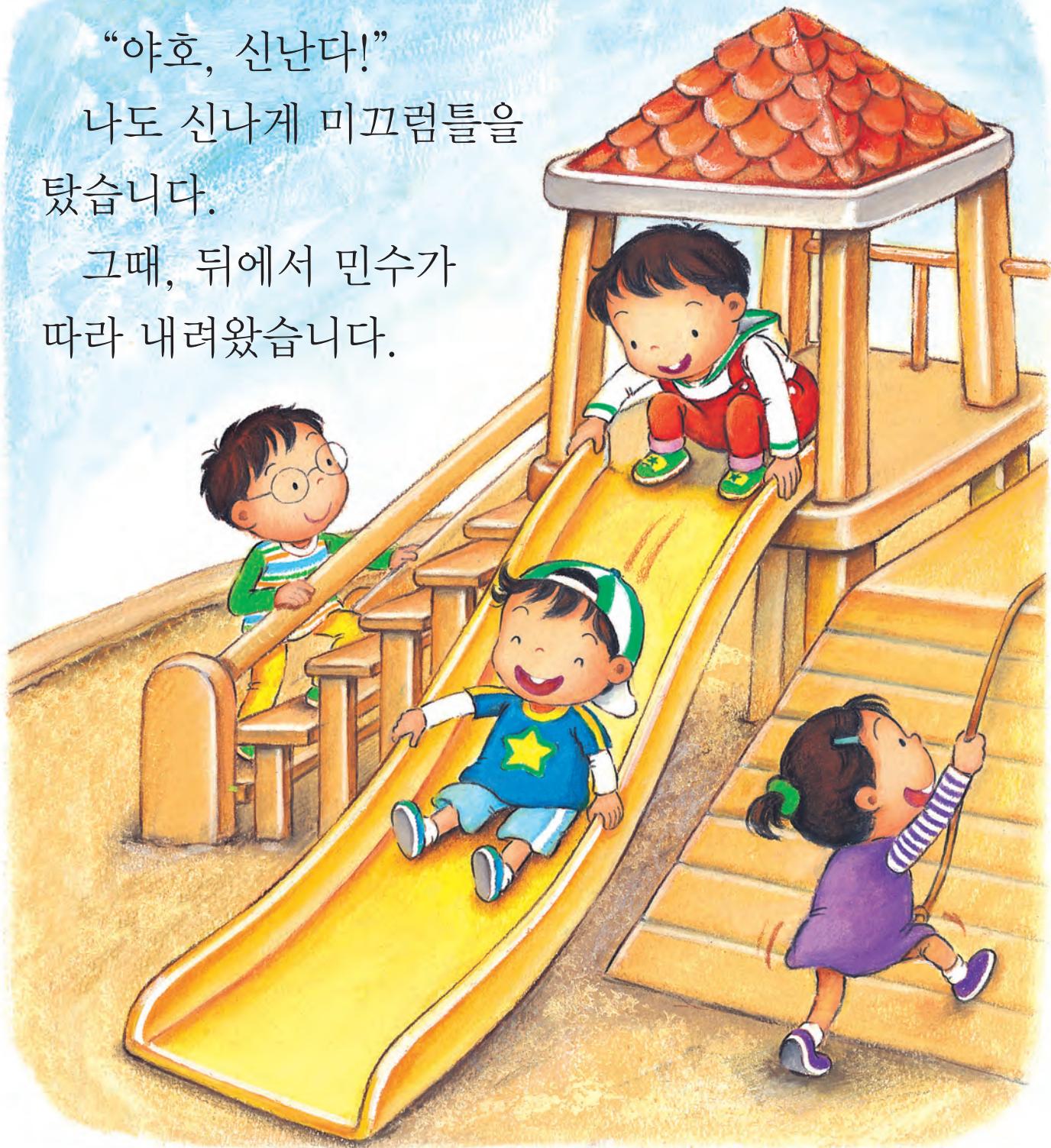


글을 소리 내어 읽고, □에 알맞은 말을 써 보세요.

“야호, 신난다!”

나도 신나게 미끄럼틀을  
탔습니다.

그때, 뒤에서 민수가  
따라 내려왔습니다.



나도

--	--	--	--

을 탔습니다.



글을 소리 내어 읽고, □에 알맞은 말을 써 보세요.

민수의 신발이 내 옷에 닿았습니다.  
옷이 더러워졌습니다.  
나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.



민수의 □□이 내 옷에 닿았습니다.



글을 소리 내어 읽고, □에 알맞은 말을 써 보세요.

“옷을 더럽게 해서 미안해.”

민수가 내 옷을 털어 주었습니다.

“괜찮아.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.”

나는 민수를 보고 웃었습니다.



민수가 미안하다고 하며, 내 □ 을 털어 주었습니다.



글의 내용을 생각하며 물음에 답해 보세요.

## 1.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가요?

①



②



③



## 2. ‘나’는 무엇을 탔나요?

--	--	--	--

## 3. ‘나’의 옷은 왜 더러워졌나요?

①



②



## 4. ‘나’의 옷이 더러워졌을 때, 민수는 어떻게 했나요?

①



②



모르는 척했습니다.

옷을 털어 주었습니다.

5. 누가 한 말인지 알맞게 이어 보세요.



민수



나

6. 그림을 보고, 알맞은 말을 골라 ○표를 해 보세요.



나는 ( 낮에, 낮을 ) 놀이터에  
갔습니다.



7. 친구가 잘못하여 여러분의 옷을 더럽힌다면 어떻게 할지 말해  
보세요.



글을 소리 내어 읽고, □에 알맞은 말을 써 보세요.

## 혼자 잘래요

“재하야, 이제 자야지.”  
엄마가 말했어요.

“안 졸려요. 달님도 안 자는걸요.”  
재하는 눈이 더 말뚱말뚱해졌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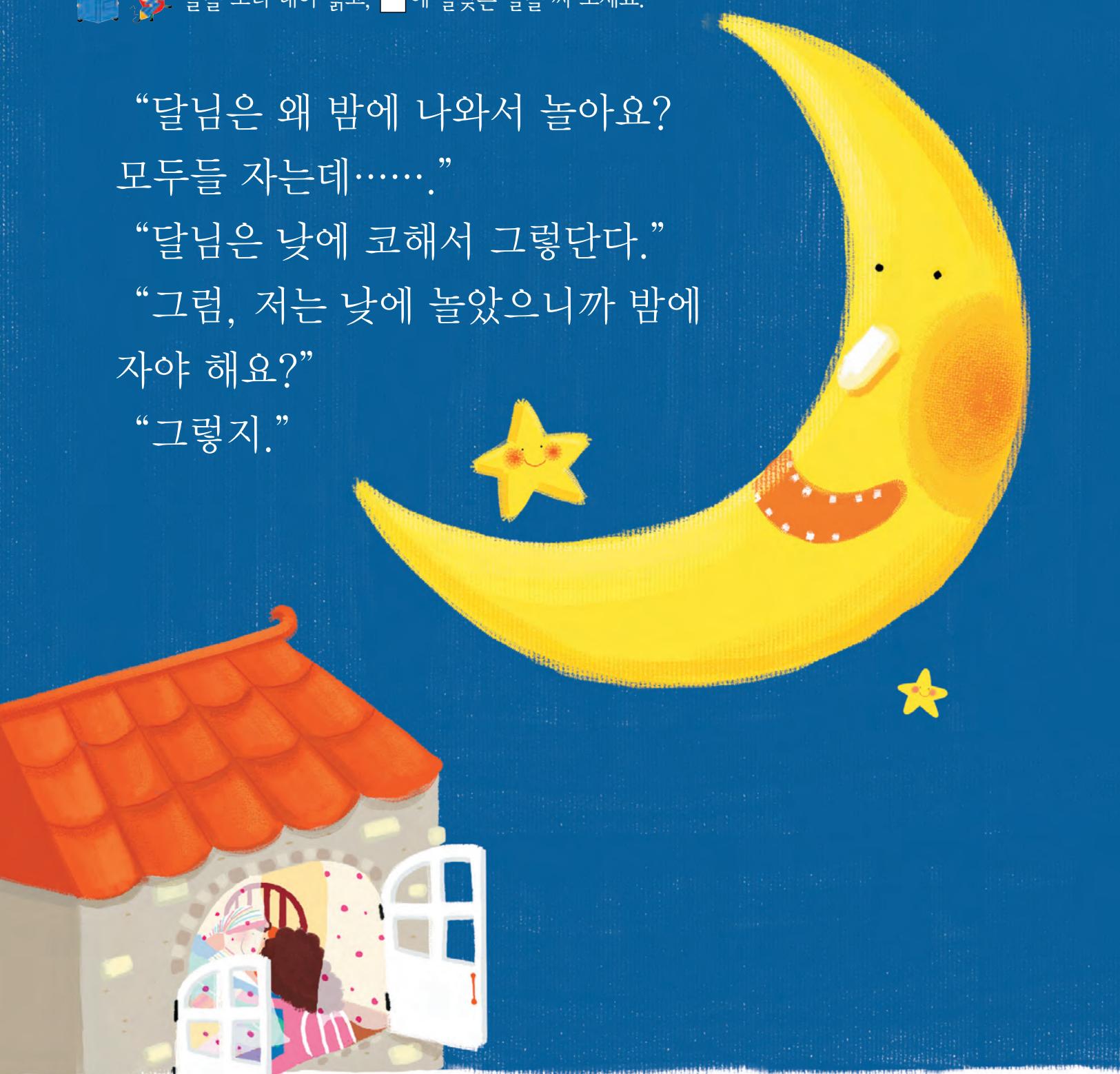


재하는 자야 하는데 □ 이 더 말뚱말뚱해졌어요.



글을 소리 내어 읽고, □에 알맞은 말을 써 보세요.

“달님은 왜 밤에 나와서 놀아요?  
모두들 자는데…….”  
“달님은 낮에 코해서 그렇단다.”  
“그럼, 저는 낮에 놀았으니까 밤에  
자야 해요?”  
“그렇지.”



재하는 낮에 놀았으니까 □에 자야 해요.



‘코하다’는 ‘잠자다’의 어린이 말입니다.



글을 소리 내어 읽고, □에 알맞은 말을 써 보세요.

재하가 침대에 눕자, 엄마가 머리를 쓸어 주었어요.

“엄마도 여기 누워요.”

재하가 옆자리를 톡톡 치며 말했지요.

“엄마랑 자면 꿈고래를 탈 수 없단다.”

“꿈고래요?”

“그래. 재하가 잠들면, 재하를 꿈바다로  
태워 가는 고래야.”



재하는 엄마랑 자면

--	--	--

를 탈 수 없어요.



글의 내용을 생각하며 물음에 답해 보세요.

1. ‘말뚱말뚱’에 어울리는 그림은 어느 것인가요?

재하는 눈이 더 말뚱말뚱해졌어요.

①



②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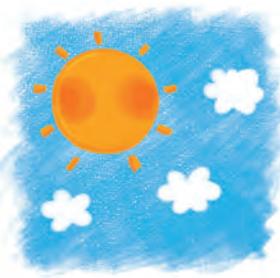
2. 재하와 달님은 언제 자는지 알맞게 이어 보세요.



재하



달님



3. 재하는 엄마랑 자면 무엇을 탈 수 없나요?

① 해님

② 달님

③ 꿈고래



4. 여러분은 혼자 잘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말해 보세요.



글을 소리 내어 읽고, □에 알맞은 말을 써 보세요.

“그런데 왜 엄마랑 자면 꿈고래를 탈 수 없어요?”

“꿈고래는 아이들만 태워서 꿈바다로 데려가거든.”

“그럼, 혼자서 꿈바다에 가야 돼요?”

“아니, 재하가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가지.

그리고 재하가 낮에 싸웠던 친구도 함께 간단다.”



▶ 꿈고래는 아이들만 태워서 □□□로  
데려가요..



글을 소리 내어 읽고, □에 알맞은 말을 써 보세요.

재하가 눈을 반짝 뜨며 말했어요.

“오늘 서연이가 저를 밀었어요. 그래서 저도  
밀었어요.”

“서연이도 꿈바다에 가겠구나. 꿈바다에 가면,  
꿈고래가 고래 분수를 태워 줄 거야. 그때 둘이  
손을 꼭 잡아야 해.”



재하와 서연이가 꿈바다에 가면, 꿈고래가  

--	--

--	--

 를 태워 줄 거예요.



글을 소리 내어 읽고, □에 알맞은 말을 써 보세요.

“나는 고래 분수를 오래 타고 싶은데…….”  
재하가 엄마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.

“재하와 서연이가 손을 잡으면, 미운 마음은 살살  
녹고, 예쁜 마음이 솔솔 솟아나지. 그러면 꿈고래가  
고래 분수를 오래  
태워 준단다.”



재하와 서연이가 □ 을 잡으면, 꿈고래가  
고래 분수를 오래 태워 줘요.



글을 소리 내어 읽고, □에 알맞은 말을 써 보세요.

그런데 재하는 집에 못 돌아올까 봐 걱정이 되었어요.

“엄마, 꿈고래가 언제 집에 데려다 줄까요?”

“새벽에 집으로 데려다 줄 거야.

아침이 되면 꿈고래도 자야 하니까.”

재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.



▶ 꿈고래는 재하를 □□에 집으로 데려다 줄  
거예요.



글을 소리 내어 읽고, □에 알맞은 말을 써 보세요.

재하는 꿈고래를 빨리 만나고 싶었어요.

“엄마, 저 혼자 잘래요.”

“그래. 오늘 밤 꿈고래를 꼭 만나라.”

엄마가 불을 껐어요.

재하는 꿈고래를 기다리며  
하품을 했어요.



재하는 □□□를 만나고 싶어서 혼자  
자겠다고 했어요.



글의 내용을 생각하며 물음에 답해 보세요.

### 1. 재하는 서연이를 왜 밀었나요?

①



서연이가 재하를 밀어서

②



서연이가 재하를 놀려서

### 2. 재하가 고래 분수를 오래 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①



엄마와 손을 잡아야 해요.

②



서연이와 손을 잡아야 해요.

### 3. 그림을 보고, □에 알맞은 말을 골라 써 보세요.



꿈고래가 재하를

--	--	--

집으로

데려다 줄 것입니다.

새벽에 새벽을



### 4. 여러분이 꿈바다에 간다면, 무엇을 하고 싶은지 말해 보세요.



'혼자 잘래요'의 내용을 생각하며 차례대로 번호를 써 보세요.



# 지금 우리 아이는



- 문장 : 어떻게(언제) 어찌한다/어떠하다
- 글 : ‘놀이터에서’, ‘혼자 잘래요’



## 2A-17

‘어떻게(언제) 어찌한다/어떠하다’가 들어 있는 문장을 학습하고,  
그 문장 형식이 들어 있는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.

### 4A

5	10	15	20	25	30
자음자	모음자	한 글자	한 글자	쉬운 낱말	쉬운 낱말 된소리 글자 많이 알아요

### 3A

받침이 있는 글자	받침이 있는 낱말	받침이 있는 낱말	내 주변의 낱말	자연과 관계있는 낱말	짝을 이루는 낱말	공간, 감각, 수를 나타내는 낱말	많이 알아요
-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--

### 2A

쉬운 글 ① 준비	쉬운 글 ②	쉬운 글 ③	쉬운 글 ④	쉬운 글 ⑤	많이 알아요
-----------	--------	--------	--------	--------	--------



### 이번 주에 배우요

‘어떻게(언제) 어찌한다/어떠하다’가 들어 있는 문장을 사용하면, 어떤 행동이나 상태를 더 자세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

‘놀이터에서’는 친구와 놀이터에서 놀다가 일어난 일을 소재로 한 글입니다.

‘혼자 잘래요’는 엄마와 함께 자려고 하던 아이가 꿈고래 이야기를 듣고 혼자 자겠다고 하는 내용의 동화입니다.

‘혼자 잘래요’는 아이의 자립심을 자연스럽게 길러 주는 이야기입니다. 무엇이든 처음 해 보는 일은 겁이 나기 마련입니다. 특히 혼자서 자는 일은 아이에게 두려운 일입니다. 재하의 엄마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상상력을 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, 두려움을 이겨 낼 수 있는 힘도 기를 수 있습니다.



I am the key